

★ 패럴림픽(paralympic)이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최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 이후 2주 뒤, 약 10일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입니다. 창설 당시에는 'paraplegia'(하지마비)와 'Olympic'(올림픽)을 합성하여 만든 용어로 하반신 마비만을 의미했으나 신체가 불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신체장애인들의 올림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하다는 의미의 'parallel'(평행한, 아주 유사한)로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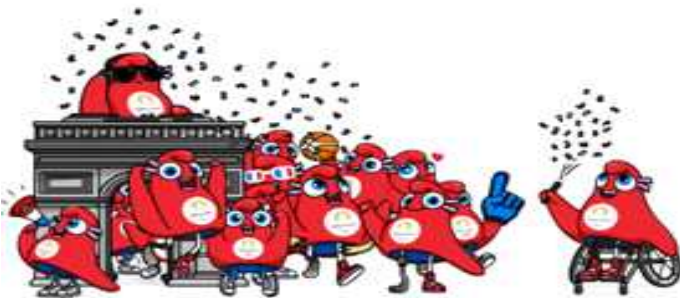
올해, 2024 파리 패럴림픽은
2024. 8. 28 ~ 9. 8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슬로건



'모두에게 열린 대회'



이미지 출처: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 파리 패럴림픽 엠블럼과 메달

올림픽
엠블럼

패럴림픽
엠블럼



패럴림픽 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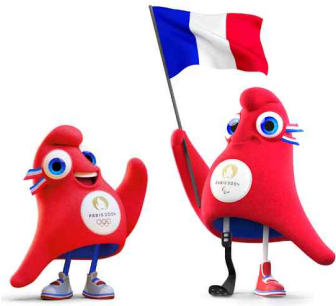
2024 파리 패럴림픽 엠블럼은 금색 올림픽 불꽃, 금색 마리안느 얼굴, 패럴림픽 원(아지토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색 올림픽 불꽃은 스포츠의 열정과 우정, 우수성을 상징하며, 금색 마리안느 얼굴은 프랑스가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자유, 평등, 박애)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패럴림픽과 올림픽의 로고와 색상이 같은 엠블럼으로 '자유, 평등, 박애'에 장애와 비장애인이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 파리 패럴림픽 픽토그램(총 23종목)

17종목 대한민국 출전!

	
보치아	골볼
위 2종목은 패럴림픽에만 있는 경기	
	
탁구	사격
	
배드민턴	사이클
	
수영	양궁
	
육상	역도
	
휠체어펜싱	유도
	
휠체어 테니스	조정
	
태권도	카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농구
	
시각장애인 축구	좌식 배구
	
휠체어러키비	승마

★ 마스코트 '프리주'



(이미지 출처: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 프리주와 패럴림픽 프리주는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로서 프리기아 모자로부터 탄생했다고 합니다. 프리기아 모자는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되면 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자유의 상징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자유'의 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주는 프리기아 모자를 의인화시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모자의 덮개는 팔로, 모자의 끝은 앞으로 접혀 이마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다리, 눈, 입이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프리주는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고 패럴림픽 프리주는 왼쪽은 빨간색 운동화를 오른쪽은 검은색 달리기용 의족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번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패럴림픽 최초로 장애를 드러낸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 패럴림픽 소식

강릉시청 박진호 선수, 파리 패럴림픽 10m 공기소총 '금메달'

대한민국 사격 간판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박진호 선수가 2024 파리패럴림픽 10m 공기소총 입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진호는 지난 8월 31일(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 249.4점을 쏘아 예르킨 가바소프(카자흐스탄·247.7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18명 중 전체 1위(624.4점)로 가볍게 통과한 박진호 선수는 결승에서 초반에 9점대를 쏘아 6위까지 떨어지며 다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슛오프에서 10.5점대 이상을 격발하며 안정세를 찾아 1위를 탈환하며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소개 영상

개회식
하이라이트 영상



박진호 선수
경기 영상



★ 이 종목이 궁금해요! 보치아

'보치아 전설' 정호원 선수 '금메달'



정호원 선수
금메달 소식 영상



보치아는 장애인 스포츠 중의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내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이 주어집니다. 개인전은 4엔드 경기로 치러집니다. 공을 던질 때는 직접 손으로 던질 수도 있고, 비장애인 선수의 도움을 받아 마우스 스틱이나 흡통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이며 국제 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볼링과 비슷한 스포츠로 소개되었고, 후에 1984년 하계 패럴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치아는 보치아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주관하며, **골볼과 함께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패럴림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치아 종목의 모든 선수는 휠체어를 타고 경기하며 뇌성마비 등의 사지 및 운동 기능 장애를 가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치아 종목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호원 선수의 우승으로, 한국 보치아팀은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 11. 7.

정 읍 남 초 등 학 교 장